

## 한의학대학 예과생의 진로관련 특성에 관한 연구

진성미<sup>1)</sup> · 박선주<sup>2)\*</sup>

<sup>1)</sup>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sup>2)</sup>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Career-related characteristics of premedical students in Korean Medicine college

Sungmi Jin<sup>1)</sup> · Sunju Park<sup>2)\*</sup>

<sup>1)</sup>Department of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 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was aimed at exploring career-related characteristics of premedical students in Korean Medicine college and those relationships with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and vocational value.

**Methods :** A total of 140 premedical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career-related characteristics such as motive for career choice, specialty preference after college graduation, and school life adaptation. Also they responded in the web-survey of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inventory and vocational value inventory developed by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Eight items of motive for career choice were collected from the pilot study from 70 premedical students.

**Results :** 'Job stability' was the top motive for career choice (25.5%). The average college life adaptation score was relatively low (13.7) : higher in male (14.3) and the early career decision group (14.2) than female (12.9) and late decision group (12.9),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 $p=0.019$  and  $p=0.036$ , respectively) in the subgroup analyses. The result of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inventory showed that 'self-knowledge' (79.3) and 'confidence on career decision' (78.6) were the two highest, which is similar to the result of the vocational value inventory ('fulfilling abilities' and 'self-improvement'). More characteristics were also described.

· 접수: 2013년 11월 20일 · 수정접수: 2013년 12월 11일 · 채택: 2013년 12월 18일

\* 교신저자: 박선주, 대전광역시 동구 대학로 62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전화: 042-280-2618, 팩스: 042-274-2600, 전자우편: sjpark@dju.kr

**Conclusions :** The results showed that Korean Medicine premedical students have high vocational identity. This study suggested that more specified studies for identifying career-related characteristics for Korean Medical students should be conducted in order to design systematic and professional medical education programs.

**Key words :** Korean Medicine college, motive for career choice, college life adaptation,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vocational value

## I. 서론

전문직 양성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의료계열 전문직은 교육 기간이 길고 교육 비용이 크며 업무가 복잡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점<sup>1)</sup>에서 다른 계열과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의 교육과 지도 체계가 필요하다<sup>2)</sup>. 실제로 의학 교육의 ‘의학 전문 직업성 (Medical professionalism)’에 대하여 외국에서는 Swick<sup>3,4)</sup>과 Stephenson<sup>5)</sup> 등은 오래전부터 많은 논의와 연구를 해 왔으며, 국외만큼 활발하지는 않지만 국내에서 역시 적합한 의학교육을 정립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sup>2),6)</sup>.

한의학대학은 의과대학과 교육체계, 교육과정, 교육 기간 등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한의학대학에 적합한 한의학 전문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김재우의 연구<sup>7)</sup> 외에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하지만 의학 교육의 핵심인 의학 전문 직업성의 내용은 일치하므로 의과대학의 의학 전문 직업성 교육의 선행연구와 목표를 바탕으로 한의학대학 특성에 기초한 교육의 방향을 설정해 보고자 이 연구를 기획하였다. 의학 전문 직업성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경우 ‘의과대학 목표 프로젝트’<sup>8)</sup>에서 의사들의 덕목 4가지로 이타심(altruism), 지식(knowledge), 기술(skill)과 책

무(duty)를 제시하였으며, 이 중 의과대학에서는 ‘의학 전문 직업성’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타심’과 ‘책무’를 꼽고<sup>2)</sup>, 한의과대학 역시 이 가치관의 중요성은 동일하다. 전문 교육에는 가치관 외에도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도와 전공과목 선택 등의 문제도 모두 포함하므로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의학대학 학생들의 진로관련 특성은 학생들의 진로선택의 동기, 이전 경험, 학교생활 적응도, 전공과목 선택, 진로개발준비 정도, 직업 가치관 등 여러 분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의료계열 선호 현상을 보이고, 의과대학생의 적응도와 전공과목 선택, 졸업 후 진로 선택 및 졸업 이후 의료인으로 활동할 때 지원 동기가 영향을 미친다는 김형준 외<sup>9)</sup>, 김민강 외<sup>10)</sup>, 김지영 외<sup>11)</sup> 등의 연구들에 근거하여 한의학대학 지원 동기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다. 또한 한의학대학 학생들에게 의료 전문직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게 하고, 개인적인 특성에 기반하여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진로 특성 조사와 졸업 후 향후 선호하는 전공 선택과의 관계 및 진로개발준비도와 직업가치관의 관계를 파악하여 차후 한의학 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개발준비도 검사와 직업가치관 검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개발한 온라인 검사로, 청소년 및 대학생이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진로 특

성을 측정하고 학교에서는 이를 기초로 진로 지도를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한 검사이다. 진로개발준비도 검사는 학생 개인의 진로 탐색, 준비 및 적응 과정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개발할 수 있게 개발한 검사이다<sup>12)</sup>. 한편, 직업 가치관 직업생활을 통하여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상대적으로 중요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개인의 특성과 일치하는 직업을 가졌을 때, 가장 큰 만족과 성취를 느낀다. 개인 특성 중, 흥미와 적성보다는 가치가 오히려 개인의 진로 선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sup>13)</sup> 직업가치관 검사<sup>14)</sup>도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진로 특성에 대한 기초 연구로서 한의과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진로 특성과 한의과대학 예과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도와 졸업 후 전공과목 선택, 진로 개발준비도 및 직업가치관과의 연관성을 조사 및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라 향후 한의과대학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대전소재 한의과대학 예과 1학년생 79명, 예과 2학년생 60명과 서울 소재 한의과대학 예과 2학년생 90명 중, 연구자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자체개발한 구조화된 설문지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개발한 진로개발준비도와 직업가치관 온라인 검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응답 소요 시간은 총 30~40분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총 176명 중 불완전한 응답을 한 36부를 제외한 140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ref No: KHSIRB-13-051)

### 2. 연구 도구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진로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체개발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하여 사용하였고 설문은 자기 기입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5개의 대항목과 23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개인식별 정보를 제외한 기본 인구사회학적 정보와 대학 입학전후의 진로특성, 진로 선택시기 및 동기, 자가 인식 적응도와 한의과대학 졸업 이후 희망 전공과 결정시기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 1) 지원동기

의과대학 지원동기를 조사하는 연구는 오래전부터 시행되었으나, 설문 도구는 연구마다 다르게 개발되어<sup>10-11),15)</sup> 공통된 양식은 없었으며, 한의과대학의 지원동기를 조사한 설문지는 개발되어 있지 않았고, 한의과대학은 졸업 이후의 진로와 지원자들의 다양성 때문에 의과대학의 지원동기 자료를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지원동기 항목은 새로 수집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설문지 항목 중 지원동기 항목을 구성하기 위하여 D대학 예과 1학년생 70명을 대상으로 사전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예비조사에서 학생들은 익명으로 본인이 한의과대학을 지원하게 된 동기를 자유롭게 기술하였으며, 연구자들은 이 자료를 내용 분석하기 위해 1차 코딩을 통해 각 지원동기에 대한 코드들을 수집한 후, 각 코드들의 특징에 따라 범주화하여 지원동기에 대한 주제들을 확인하였다. 이 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① 학문적 흥미, ② 능력과 적성에 맞아서, ③ 소명의식, ④ 직업의 안정성, ⑤ 직업의 사회적 지위, ⑥ 직업의 발전 가능성, ⑦ 주변 영향, ⑧ 기타 8개 항목으로 지원동기 문항들을 구성하였으며, 설문 참여자들은 이 중 가장 우선시한 동기를 선택하였다.

## 2) 대학생활적응도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선행 연구들<sup>16)</sup>이 크게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학업에 대한 적응, 교우 관계나 교수와의 관계에 대한 사회 적응,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개인 정서 적응, 그리고 대학 환경에 대한 적응 등의 4개 영역을 구분한 것에 기초하여, 이 연구에서는 위의 4개 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자기가 인식한 적응 정도를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스로 인식한 적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체적인 적응도는 영역별 합계 점수를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구성된 설문지는 다음과 같다.

기본 인적사항으로는 성별, 출생년도, 입학년도, 혼인여부, 고교 전공, 고교 졸업 후 한의과대학에 입학한 시기, 과거 타 대학 대학 유무, 과거 직장생활 경험 유무로 총 8문항으로 구성된다. 진로 관련 사항으로는 한의대 진로 결정 시기, 한의과대학 진학 동기, 본인이 인식한 대학생활 적응도, 한의과대학 졸업 이후 희망하는 전공 등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진로개발준비도와 직업가치관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측정도구로서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타당도 검사를 거친 검사로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개발하여 온라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두 검사(<http://www.career.go.kr/>)를 사용하였다.

## 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개발준비도 검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개발한 대학생용 진로개발준비도검사는 자기이해 5문항(내적 일치도 0.75), 전공 및 직업에 대한 지식 6문항(내적 일치도 0.76), 진로결정 확신도 5문항(내적 일치도 0.76), 의사결정 자신감 6항목(내적 일치도 0.78), 관계 활용 효능감 6항목(내적 일치도 0.75), 구직 기술 7문항(내적 일치도 0.91)로 총 6개 하위 항목(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

항은 5점 만점으로, 항목 수에 따라 원점수가 산출되며 검사 결과는 각 영역별 프로파일 점수를 산출하는 검사이다<sup>12)</sup>.

## 4) 한국직업능력평가원 직업가치관 검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개발한 대학생용 직업가치관 검사는 직업과 연관된 다양한 가치들 중 응답자가 자신의 직업에 있어 상대적으로 어떤 가치를 얼마나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알아보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총 검사 문항수는 28문항이다. 검사항목으로는 능력발휘, 자율성, 보수, 안정성, 사회적 인정, 사회봉사, 자기개발, 창의성으로 8개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들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0.49~0.77에 걸쳐 있다<sup>14)</sup>.

## 3. 자료 분석방법

연구 참여 대상자들의 개인적 특성과 조사 항목이 범주형 자료인 경우는 빈도와 백분율로, 수치형 자료인 경우에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기술하였다. 범주형 자료의 군간 차이는 chi-square test를 하였고, 수치형 자료인 경우 정규분포가정을 만족하면, 두 군의 군간 차이는 independent t-test, 세 군간 차이는 ANOVA를 실시하고 사후 분석을 시행하였다. IBM SPSS® Statistics ver21.0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 III. 결 과

### 1. 연구 대상의 특성

대전과 서울 소재 한의과대학 예과 재학생들의 기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진로 특성을 분석하면 위와 같다(Table 1). 10대의 비율이 59.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remedical students in Korean medicine college (N=140)

	n	%
School & grade		
Daejeon 1st	66	47.1
DaeJeon 2nd	7	5.0
Kyung Hee 2nd	67	47.9
Age group		
10s	83	59.3
20s	55	39.3
30s or more	2	1.4
Gender		
Male	76	54.3
Female	64	45.7
Marital status		
Married	3	2.1
Single	137	97.9
High school (HS) specialty		
Sciences	90	64.3
Humanities/social studies	50	35.7
Others	0	
Time of entrance		
After HS graduation or one or more year study	104	74.3
After other college experiences	33	23.6
After work life	3	2.1
Others	0	0
Time of career decision for Korean medicine college		
Elementary school	13	9.3
Middle school	10	7.1
High school	55	39.3
Others (After graduating high school)	62	44.3
Specialty preference after college graduation		
Specialty (considering at present)		
Clinical base	117	83.6
Basic medical course	11	7.9
Others	11	7.9
Time of decision		
Before entrance	62	44.3
After entrance	50	35.7
Not decided yet	28	20.0
Reason for choosing specific specialty		
Matching with one's aptitudes and abilities	108	77.1
Other's recommendations	19	13.6
Fear for the other major	3	2.1
Others	10	7.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remedical students in Korean medicine college (continued)

	Mean±SD (raw score)	No. of sub-items <sup>†</sup>	Converted to 100 mean±SD <sup>‡</sup>
Self-reported college life adaptation*			
Academic adaptation	3.3±1.1	-	-
Social adaptation	3.6±1.0	-	-
Individual emotion adaptation	3.5±1.1	-	-
College system adaptation	3.3±1.1	-	-
Total score (0~20)	13.7±3.6	-	-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Self- knowledge	19.8±2.7	5	79.3±10.6
Information on occupations & majors	22.7±3.4	6	75.8±11.2
Confidence on Career decision	19.6±3.3	5	78.6±12.7
Efficacy on decision-making	21.1±4.6	6	70.4±15.2
Efficacy on networking	22.9±3.5	6	76.4±11.8
Employability skills	23.4±4.3	7	66.9±12.4
Vocational value			
Fulfilling abilities	4.7±1.5	-	-
Autonomy	3.8±1.8	-	-
Economic reward	3.4±2.3	-	-
Stability	3.1±2.2	-	-
Social recognition	4.1±2.0	-	-
Service to society	2.8±2.3	-	-
Self-improvement	4.3±1.9	-	-
Creativity	2.5±2.3	-	-

Categorical data were described as n (%) and continuous data were described as mean±SD.

\*: Self-reported college life adaptation was measured by 5-point Likert scale (High score means high satisfaction)

†: Numbers of sub-items that comprise each item of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inventory, and maximum score of each sub-items is 5.

‡: Conversion scores were calculated by the formula as follows: each item score \* 100 / ((No. of sub-items) \* 5). (score range: 0~100).

SD: standard deviation

고교 졸업 이후 고등학교 경험만 있는 학생의 비율은 74.3%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녀의 비율은 남, 녀 각각 54.3%, 45.7%로 유사하였다. 한의과대학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시기는 고등학교 시기와 고교 졸업 이후 (39.3%, 44.3%)

였으며, 한의과대학 졸업 이후의 전공은 임상 분야를 대부분 선호하는 현상을 보였다(83.6%). 44.3%의 한의과대학 예과생은 대학 졸업이후의 전공을 결정하고 입학하는 경향도 보였다(4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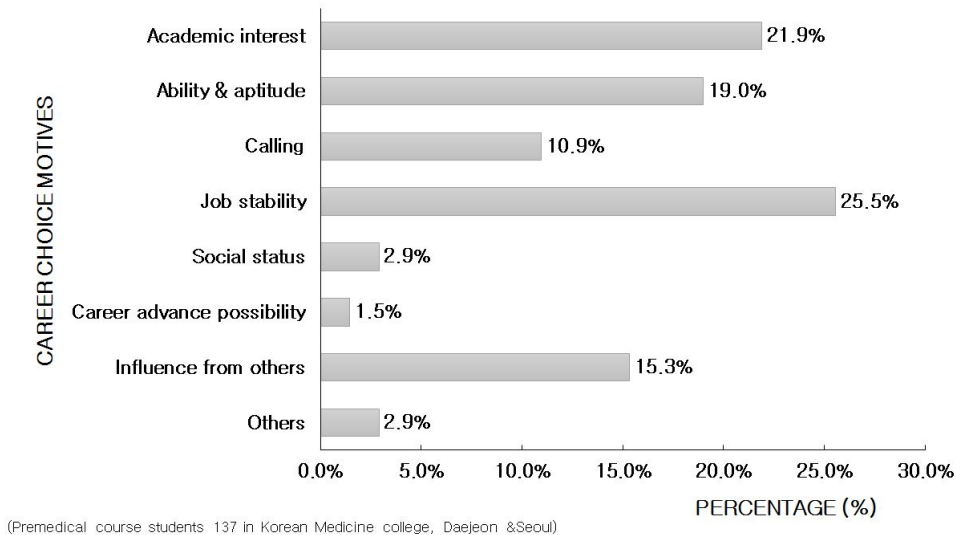


Figure 1. Distributions of career choice motives for Korean medicine college

## 2. 한의과대학 지원동기

예과생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연구에서 한의과대학 지원동기는 총 8가지로 분류되었으며, 지원 동기는 직업 안정성 25.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학문적 흥미 21.9%, 능력 및 적성 일치 19.0%가 그 뒤를 이었다(Figure 1).

## 3. 대학 생활 적응도

대학 생활 적응도는 학업 적응도(전공 적응도), 사회 적응도(교우, 교수관계 적응도), 개인 정서 적응도(심리적 적응도), 대학 환경 적응도 네 영역에서 각각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전반적인 적응도 총합은 다음과 같다(Table 3).

분석 및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교 졸업 후 한의과대학에 입학한 시기에서 ‘졸업 직후 혹은 재수(삼수)’를 ‘오직 고교 경험만’으로, ‘타 대학 재학하다, 혹은 타 대학 졸업 후’, ‘타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 한 이후’, ‘기타’ 세 항목을 ‘고교 졸업 이후 타 경험’ 두 군으로 묶었다.

한의대 진로를 결정한 시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 군으로 묶고, 기타(고교 졸업 이후)는 ‘고교 졸업 이후’로 두 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입학 전에 한의과대학 졸업 이후 희망 전공 결정 시기에서 ‘입학 전부터’는 ‘이정(예)’, ‘입학 이후에’와 ‘아직 결정하지 못함’은 ‘미정(아니오)’로 구분하였다. 지원 동기의 경우, 통계적 검정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문적 흥미’, ‘능력 및 적성 일치’와 ‘소명의식’은 ‘개인특성요인’으로, ‘직업 안정성’, ‘직업 사회적 지위’, ‘직업 발전 가능성’은 ‘직업특성요인’으로, ‘주변 영향’과 ‘기타’는 ‘주변영향요인’으로 크게 3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적응도에서는 성별, 예과 학년, 지역, 한의과대학 진로 선택 시기 간에 통계학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의 적응도가 14.3으로 여학생 12.9보다 전반적인 총합 점수가 높았으며, 서울 지역의 예과 2학년생의 적응도가 14점으로 더 높았다. 고교 졸업 이후에 한의과대학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보다(12.9점), 초중고시절 진로를 비교적 일찍 결정한 학생들

Table 3. Total score of self-reported college life adaptation (N=140)

		n	Mean±SD	p-value
Gender	Male	76	14.3±3.3	0.019*
	Female	64	12.9±3.9	
Premedical course (PMC) grade	PMC 1	66	12.9±3.4	0.027*
	PMC 2	74	14.3±3.8	
Region	Daejeon	73	13.0±3.4	0.026*
	Seoul	67	14.4±3.8	
Age group	10s	83	13.7±3.6	0.848
	20s or more	57	13.6±3.6	
High school specialty	Sciences	90	14.1±3.6	0.075
	Humanities/social studies	50	12.9±3.6	
Experiences before college entrance	Only high school experience	104	13.6±3.8	0.572
	Other experiences after high school	36	13.9±3.2	
Time of career choice	During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78	14.2±3.5	0.036*
	After high school graduation	62	12.9±3.6	
Career choice motives	Individual factor	71	14.1±3.6	0.079
	Vocational factor	41	12.5±2.8	
	Others' recommendation	25	14.1±4.7	
Specialty choice before college entrance	Yes	62	13.4±3.4	0.473
	No	78	13.9±3.8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Independent t-test and ANOVA (Bonferroni method was used for post-hoc analyses) were used as appropriate.

에게서 (14.2점) 적응도가 높았다.

#### 4. 진로개발준비도 분석- 한의과 대학 입학 전 전공 결정 여부 및 지원 동기에 따른 차이

한의과대학 입학 전 졸업 후 전공 선택 여부 및 지원 동기에 따른 진로개발준비도 하위 항목 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4). 졸업

이후 임상과 기초, 또는 기타 전공을 한의과대학 입학 전부터 이미 결정한 군이 미정인 군보다 구직준비도 점수가 24.6점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 자기이해와 의사결정 자신감에서는 개인특성 요인으로 지원한 군에서 각각 20.5점과 22.1점으로 직업특성 요인으로 진로를 선택한 군보다 더 높았고,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였다(Table 4).



Table 4. Item comparison of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according to specialty choice status before college entrance and career choice motives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Self-knowledge 자기이해		Information on occupations & majors 전공 직업지식		Confidence on Career decision 진로결정확신도		Efficacy on decision-making 의사결정자신감		Efficacy on networking 관계활용자신감		Employability skills 구직준비도	
n		mean±SD	P <sup>-</sup> value	mean±SD	P <sup>-</sup> value	mean±SD	P <sup>-</sup> value	mean±SD	P <sup>-</sup> value	mean±SD	P <sup>-</sup> value	mean±SD	P <sup>-</sup> value
Specialty choice before college entrance													
Yes		62	20.3±2.3	22.7±3.6	0.798	20.0±3.2	0.282	21.8±4.3	0.126	23.0±3.2	0.891	24.6±4.2	0.004*
No		78	19.5±2.9	22.8±3.2		19.4±3.2		20.6±4.7		22.9±3.8		22.5±4.2	
Career choice motives													
Academic interest													
Ability & aptitude													
Calling													
Job stability													
Social status		71	20.5±2.4 <sup>a</sup>	23.0±3.6		20.2±3.0		22.1±4.0 <sup>a</sup>		23.1±3.7		23.6±4.5	
Vocational factor		41	18.6±2.8 <sup>b</sup>	22.3±3.0	0.584	18.8±3.2	0.081	19.3±4.7 <sup>b</sup>	0.008*	23.0±3.1	0.673	23.8±4.0	0.472
Career advance possibility													
Influence from others													
Others' recomm- endation		25	20.0±2.6	23.0±3.3		19.8±3.4		21.2±5.3		22.4±4.1		22.5±4.3	

\* :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Scores for each item are described as raw scores.

Independent t-test and ANOVA (Bonferroni method was used for post-hoc analyses) were used as appropriate (a>b).

Table 5. Item comparison of vocational value according to specialty choice status before college entrance and career choice motives

		Vocational value																
		Fulfilling abilities 능력발휘		Autonomy 자율성		Economic reward 보수		Stability 안정성		Social recognition 사회적 인정		Service to society 사회봉사		Self-improvement 자기개발		Creativity 창의성		
n		mean±SD	p-value	mean±SD	p-value	mean±SD	p-value	mean±SD	p-value	mean±SD	p-value	mean±SD	p-value	mean±SD	p-value	mean±SD	p-value	
Specialty choice before college entrance																		
62	Yes	5.0±1.5	0.031*	4.1±1.9	0.188	3.0±2.2	0.055	2.8±2.2	0.266	3.6±2.1	0.017*	2.9±2.4	0.532	4.4±1.9	0.417	2.7±2.3	0.380	
78	No	4.4±1.5		3.7±1.8		3.7±2.3		3.2±2.3		4.4±1.9		2.6±2.2		4.2±1.9		2.4±2.4		
Career choice motives																		
Academic interest																		
71	Ability & dual aptitude factor	4.8±1.5		3.9±1.8		2.5±2.2 <sup>b</sup>		2.6±2.2 <sup>b</sup>		3.6±1.9 <sup>b</sup>		3.7±2.4 <sup>a</sup>		5.0±1.8 <sup>a</sup>		2.9±2.5 <sup>a</sup>		
Social status																		
41	Vocational factor	4.4±1.5	0.325	3.6±1.9	0.562	4.8±1.6 <sup>a</sup>	0.000*	3.9±1.9 <sup>a</sup>	0.009*	4.9±1.9 <sup>a</sup>	0.003*	1.3±1.3 <sup>b</sup>	0.000*	3.2±1.7 <sup>b</sup>	0.000*	2.0±2.0 <sup>b</sup>	0.157	
Career advancement possibility																		
25	Influence from others	4.4±1.6		3.9±1.9		3.9±2.3		3.2±2.4		4.3±2.2		2.4±2.0		3.8±1.8		2.5±2.3		

\* :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Independent t-test and ANOVA (Bonferroni method was used for post-hoc analyses) were used as appropriate (a>b).

## 5. 직업가치관 분석 - 한의과대학 입학 전 전공 결정 여부 및 지원 동기에 따른 차이

한의과대학 입학 전 졸업 후 전공 선택 여부 및 지원 동기에 따른 직업가치관 하위 항목 간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5). 능력발휘 가치관 면에서는 입학전 전공선택 여부에 따라 이미 결정된 군의 능력발휘 가치관 점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5.0점,  $p=0.031$ ). 반면, 입학 전 전공을 선택하지 않은 군에서 사회적 인정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4.4점,  $p=0.017$ ). 능력 발휘 및 자율성면에서는 지원동기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점수가 군간 비슷하였고, 직업특성 요인으로 한의과대학으로 진로를 선택한 군이 개인특성 요인으로 선택한 군보다 보수, 안정성, 사회적 인정 가치관면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각각 4.8점, 3.9점, 4.9점;  $p<0.001$ ,  $p=0.009$ ,  $p=0.003$ ). 사회봉사와 자기계발 가치관면에서는 개인특성 요인으로 지원한 군이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지원한 군보다 점수가 높았고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을 보였다(각각 3.7점, 5.0점;  $p<0.001$ ,  $p<0.001$ ). 창의성면에서는 개인특성 요인으로 지원한 군에서의 점수가 직업특성 요인으로 지원한 군보다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2.9점,  $p=0.157$ ).

## IV. 고찰

이 연구는 한의과대학 예과생들이 어떻게 한의과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으며 이후 어떤 세부 전공을 고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대학생 활과 진로준비에 대한 인식과 준비도 및 직업가치관 등 진로와 관련된 예과생들의 특성들 조사를 토대로 이후 한의과 예과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한의과대학 2곳 예과생 14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형

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졸업 후 전공 선택, 한의과 진로선택 동기, 대학생 활적응도, 진로개발준비도, 직업가치관 등을 조사하였으며, 진로선택 동기에 따른 진로특성 차이를 확인하였다.

한의과대학 진로선택 동기 확인한 결과, 직업 안정성(25.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학문적 흥미(21.9%), 능력과 적성(19.0%)의 순으로 나타나(Figure 1), 학생들이 직업선택에 있어 안정성을 중요한 선택 동기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비록 2003년 연구결과지만 개인적 흥미와 관심 때문에 의과대학을 지원했다는 비율이 41.4%로 가장 높았던 점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sup>9)</sup>.

지원동기에 따른 학생들의 진로개발준비도와 직업가치관 등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 동기를 크게 개인특성 요인(개인의 능력과 적성, 흥미, 소명의식)과 직업특성 요인(직업 안정성, 사회적 지위, 발전가능성), 주변영향 요인 3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결과, 개인특성 요인으로 한의과대학을 선택한 군에서 진로개발 준비도 하위 항목 중 자기이해, 전공 직업지식, 진로결정 확신도, 의사결정 자신감, 관계활용 자신감 5가지 항목에서 직업특성 요인으로 선택한 집단보다 높게 나왔으며, 그 중 자기이해와 의사결정 자신감 점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4).

지원동기에 따른 직업가치관의 군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개인특성 요인으로 한의과대학 진로를 선택한 집단의 경우 능력발휘, 자율성, 사회봉사, 자기계발, 창의성 부분에서 직업특성 요인으로 진로를 선택한 군보다 점수가 높았고, 이중 사회봉사와 자기계발 항목은 그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개인특성 요인으로 선택한 군에서 자기계발 점수 평균이 5.0으로 가장 높아 본인이 선택한 지원동기와 검사 결과가 일치하였으며, 보수와 안정성은 각각 2.5점과 2.6점으로, 상대적으로 덜 고려해 개인의 능력과 자

울성, 소명의식을 주로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업특성 요인으로 한의과대학을 선택한 군에서는 보수와 사회적 인정이 각각 4.8점과 4.9점, 안정성 3.9점으로 이 특성들을 진로 선택 시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능력발휘 및 자율성도 각각 4.4점, 3.6점으로 개인특성 요인으로 선택한 군의 4.8점, 3.9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직업특성 요인 외에도 개인특성 요인도 폭 넓게 고려한 점을 알 수 있다(Table 5).

한의과대학을 선택하게 된 동기와 아울러 졸업 이후 세부 전공 선택이 어떠한지 알아본 결과, 한의과대학 졸업 후 전공에 대해서는 예과학생들은 기초나 기타 분야에 비해 임상 분야를 고려하고 있는 학생이 83.6%로 나타나 임상과 기초 간의 전공 선호에 대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이는 이전 연구들<sup>9),17)</sup>에서 의대생들의 임상 전공 선호도가 높은 결과와 유사하지만 해석 시 주의를 요한다. 예과생들이 임상에 대한 선호 이유를 77.1%가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아서'라고 응답하였으나, 35.7%의 학생들이 세부전공을 결정한 시기가 입학 이후이고 미결정자도 20%나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예과생들은 아직 자신들의 능력과 적성을 충분히 파악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학생들이 임상과 기초, 또는 기타 타 분야 전공 선택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후 전공 분야에 대한 이해와 관련 지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한의과대학으로 진로를 선택하여 한의과대학에 진학하게 된 시기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 타 대학 재학 혹은 졸업 후에 진로를 바꿔 입학한 학생들의 비율도 44.3%를 차지하였다(Table 1). 이는 다른 전공에 비해 한의학 전공 및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이 가진 특수성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입학하는 학생들의 다양성은 이후 한의과대학 교육에 있어 학생들에 대한 지도와 상담에 있어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알아보기 위

한 항목에서 전체 예과생 140명의 적응도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총 20점 만점 중 평균 13.7점), 한의대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며, 이를 지원하고 지도하기 위한 학교에서의 교육 및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활적응도의 집단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이 14.3점으로 여학생 12.9점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남녀 차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예과 2학년 학생들이 14.3점으로 예과 1학년학생들 12.9점보다 점수가 높았으나, 이는 개인특성 외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 생활에 더 적응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진로 선택 시기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도 차이는 초중고시기에 결정한 학생들이 14.2점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 나이와 경험이 쌓인 학생들 점수인 12.9점보다 적응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3). 이는 진로 선택이 일찍 이루어질수록 대학에서의 적응 또한 더 수월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중고교 학생들에 대한 진로지도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함과 동시에 진로선택이 늦은 학생들의 경우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며, 어떠한 지원을 통해 대학생활적응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의학과 예과생들이 자신의 진로개발준비도를 확인하기 위한 6가지 항목을 각각 백분위점으로 환산한 결과, 자기이해(79.3점)와 진로결정확신도(78.6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관계활용자신감(76.4점), 전공 직업지식(75.8점), 의사결정자신감(70.4점), 구직준비도(66.9점) 순이었다(Table 1). 이 결과는 학생들이 진로결정시 학문적 흥미와 능력과 적성을 중요한 동기로 밝힌 결과와 유사한데(Figure 1),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대한 이해는 진로개발준비에 있어 자기이해도와 관련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구직준비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아직 예과생들이 실제 구직과 관련한 기술들(면접준비 능력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구직 기술)이 낮을 수밖에 없

는 저학년 특성을 반영하며, 이는 다른 연구들에서도 구직준비도가 학년이 낮을수록 낮다는 결과와 일치한다<sup>12)</sup>.

직업가치관의 경우, 전체 대상학생에서는 능력 발휘(4.7점)와 자기개발(4.3점)을 가장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고, 사회적 인정(4.1점), 자율성(3.8점), 보수(3.4점), 안정성(3.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사회봉사와 창의성은 각각 2.8점과 2.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학생들의 한의과 진로선택 동기에서 안정성을 가장 중시(Figure 1)한 점과 상이한 결과이다. 이는 직업가치관검사 자체가 개인 내부에서 예상 가치들간에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응답자가 대부분의 가치들에 높게 반응하려는 경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쌍을 제시하여 상대적 중요성으로 판단하게 한 방식으로 검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결과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즉, 직업가치관검사 결과는 능력발휘나 자기개발을 안정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는 사회경제적인 현상의 영향을 크게 받지만 직업가치를 판단할 때 여전히 개인특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진로개발준비도와 직업가치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의대 예과학생들의 경우 능력발휘와 자기개발을 매우 중시하며 진로개발 능력에 있어서도 자기이해와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진로에 대한 비교적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능력개발과 자기이해에 대한 인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전문직의 준비면에서 한의과대학 예과생들이 비교적 높은 직업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직업가치 중 사회봉사나 창의성 등의 항목이 낮게 보고된 것을 감안한다면, 한의과대학 교육을 통해 한의사 및 한의학 전공자로서의 직업 윤리와 사회적 역할

에 대해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예과학생들의 진로개발 준비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자신감이나 구직준비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은 대학생의 발달 수준에 따른 결과로 해석 가능하며, 앞서 졸업이후 전공 결정에 대한 확신이 낮은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진로지도시 전공들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의과대학 내에서 자신의 전공을 탐색하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자료 수집이 가능한 대전과 서울 소재의 한의과대학 예과생 14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국 한의과대학 예과생의 진로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향후 전국 한의과대학 예과생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면 더욱 신뢰로운 한의과 예과 교육을 위한 진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한 이러한 자료들에 근거하여 이후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한의학 지원 동기나 직업가치관, 진로개발 등에 대한 영향 요인들을 확인하여 한의대 교육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체계를 수립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비록 제한적 대상에 대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한의과대학 지원 학생의 진로관련 특성들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의과 예과생들의 진로 준비나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최초의 조사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한의과대학생들의 진로 특성에 맞는 예과 교육 특성화를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 V. 결론

2012년과 2013년에 입학한 대전과 서울 소재 한의과대학 예과생 총 140명에게 지원동기를 포함한 진로특성과 대학 생활 적응 정도, 졸업 이후 희망 전공, 진로개발준비도와 직업가치관 검

사를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한의과대학 진로선택 동기에서 학생들이 직업선택에 있어 안정성을 가장 중요한 선택 동기로 여기고 있다.

2. 한의과대학 예과생의 졸업 이후 세부 전공에서는 임상 분야 선호도가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미결정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높았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이후 타대학이나 다른 직장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비율도 높으므로 이러한 다양성 때문에 차별화된 정보제공 및 진로지도가 요구된다.

3. 전반적인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높지 않았고, 비교적 이른 시기인 초중고 시절에 한의과대학으로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이 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으므로, 대상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4. 진로개발준비도와 직업가치관 검사의 전반적인 결과, 한의과대학 예과생의 자기이해와 진로결정확신도 즉 가치관 면에서는 능력 발휘와 자기계발을 중시하여 비교적 높은 직업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편이었으나, 사회적 봉사과 창의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직업윤리 및 직업정체성 교육과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하다.

### 감사의 글

설문조사에 도움을 주신 경희대학교 예방의학교실에 감사드립니다.

### 참고문헌

- Ahn D. Development of medical professionalism in South Korea.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2011;54(11):1137.

- 맹광호. 한국에서의 ‘의학전문직업성’ 교육: 과제와 전망. *한국의학교육*. 2008;20(1):3-10.
- Swick HM, Szenas P, Danoff D, Whitcomb ME. Teaching professionalism in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JAMA: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999 Sep 1;282(9):830-2.
- Swick HM. Toward a normative definition of medical professionalism. *Academic medicine: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2000 Jun;75(6):612-6.
- Stephenson A, Higgs R, Sugarman J. Teaching professional development in medical schools. *Lancet*. 2001 Mar 17;357(9259):867-70.
- 김선, 허예라. 21 세기의 의학 전문직업성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한국의학교육*. 2003;15(3):171-86.
- 김재우. 졸업 후 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제3 의학. 2004;8(1):63-81.
- Medical School Objectives Project (MSOP), American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 1998
- 김형준, 박서진, 김정은, 박은철, 이후연. 의과대학생의 전공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의학교육*. 2003;15(2):151-61.
- 김민강, 강진오.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진로선택동기 및 도덕판단력 비교.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007;19(2):91-9.
- 김지영, 손희정, 김태진, 최윤호, 김호중, 기창원, et al. 지원동기가 의과대학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학교육*. 2004;16(2):207-18.
- 임언, 윤형한. 대학생용 진로개발준비도 검사 개발. *한국진로교육학회*. 2005;18(1):116-32.
- Bretz RD, Judge TA. Person-organization fit and the theory of work adjustment: Implications for satisfaction, tenure, and

- career suc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994;44:32-54.
14. 임언. 진로심리검사 개정 및 활용 프로그램 개발.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15. Ryue SH, Lee HB. 국내 의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의예과 학생들의 인지·정서·사회적 특성 고찰. *Korean J Med Educ*. 2012;24(2): 103-15.
  16. 황매향, 박혜영. 대학생의 진로발달과 학교적응도와와의 관계. *직업능력개발연구*. 2005;8(2): 157-76.
  17. Lee JH, Kim GI, Park KH, Yune S-J. 의학전문대학원생과 의과대학생의 전문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한국의학교육*. 2009;21(4):393.